

##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새사람을 산출함

성경: 엡 2:15-16, 4:22-24, 골 3:10-11

- I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이다 — 엡 1:9, 11, 3:11, 2:15-16, 4:22-24, 롬 8:28, 딤후 1:9.**
- A.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가지시는 것이었다 — 창 1:26.
  - B. 결국,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다. 한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한다 — 창 1:26.
- II.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창조되었다 — 엡 2:15-16.**
- A.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두 종류의 재료, 곧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과 신성한 요소로 창조되었다.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요소를 함께 두어 한 새사람을 산출하셨다.
  - B. 그리스도는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,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,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심으로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— 롬 6:6, 고후 5:17.
  - C.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,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을 것이다.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새사람의 요소인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— 엡 2:15.
    - 1. 오직 신성한 본질 안에서, 그리고 신성한 본질만으로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.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러한 본질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.
    - 2. 그리스도 자신이 새사람의 본질이다.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, 이 둘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.
    - 3. 한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된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,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다. 그러므로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이다 — 골 3:11.
- III. 교회는 한 새사람이고, 이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. 우리에게는 어떤 입지도 없다 — 골 3:10-11.**
- A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원하시고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— 마 17:5, 골 1:18, 2:2, 17, 3:4, 10-11.
    - 1.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의 경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,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— 골 1:18, 2:17.
    - 2.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— 갈 4:19, 엡. 3:17상, 골 3:11.
  - B.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전혀 없으며, 타고난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가 조금도 없다 — 골 3:10-11.
  - C. 새사람은 유일하게 하나,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.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,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이다 — 엡 2:15, 골 3:11.
  - D. 우리가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고 대치될 때, 한 새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— 고후 3:18.
    - 1. 새사람은 모든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를 적셔시고 우리를 대치하시는, 모든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다 — 골 3:11.

2.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한다 — 엡 3:17상, 갈 4:19.
- E.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— 골 3:11.
1.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 — 골 1:27, 3:11.
  2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, 새사람 안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여지가 없다 — 골 3:10-11.
  3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라는 실재를 체험하려면,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살아야 한다 — 갈 2:20, 빌 1:20-21상.
  4.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동시에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— 골 3:11.
    - a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,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.
    - b. 그리스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지체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— 골 3:11.

**IV.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— 엡 2:15, 4:22-24, 골 3:10-11.**

- A.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— 엡 3:17-19, 골 3:4, 10-11.
- B. 모든 이들이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높은 것이다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려면,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— 갈 2:20, 엡 2:15, 3:17상.
- C. 한 새사람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,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며,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 올 것이다 — 계 11:15.